

# 중소건설업체 연말 돈구하기 '허덕'

### 정부,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관리지침 개정 경기 불황속 60일 금액 유지위해 전전공금

정부가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자본금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연말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관리지침에는 일시적 조달 예정 확인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가 연말까지 법인통장에 예치해야할 자본금을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 6억원, 토목 7억원, 조경 7억원, 토건 12억원, 산업설비 12억원 등이며, 전문

건설업은 포장·강구조물 3억원, 철근 콘크리트 2억원, 토공 2억원, 상·하수도 2억원 등이다. 자본금 유지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같은 이유로 해양부가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관리지침에는 일시적 조달 예정 확인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가 연말까지 법인통장에 예치해야할 자본금이 많이 사용되는 연말 자금이 묶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최악의 건설 불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호·남

양·금광기업 등 간판 건설사들마저 속속 무너져내려 '비빌 언덕'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의 A건설사 대표는 "광주의 경우 25%가 넘는 업체들이 올해 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데 무리해가며 자본금을 맞춰야 할 지고민스럽다"고 말했다. B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통장은 비었고 사채는 1억원에 선이지만 5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자본금 2억 원을 두달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좋지 만 자본금 맞추기는 영세업체들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로 전남지역 일반건설업체 137개 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 등 수주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건설 물량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돈맹확화'에 죽을 맛이지만, 사채시장은 특수를 맞고 있다. 한 달 대출조건으로 이들이 거둬들이는 이자수익만 1개 건설사당 적게는 400만~6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을 웃돈다. 건설면허가 2~3개인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자연스레 수익금도 2~3배 된다. 광주지역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내로라하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사고를 우려해 '평간 대출'을 꺼리면서 주로 개인 사채업자들이 돈을 굴리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건설사 옥석가리기'가 한편에선 사채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융 상담해주세요” 몰려든 서민들  
15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에 많은 상담자들이 몰려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나친 술 광고 자제하겠습니다”

### 16개 기업 자율규제 협약

국내 소주, 맥주, 양주 제조업체 16개 기업이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나친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5일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와 함께 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이 '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진로와 롯데주류, 금북주, 보배, 무학, 대신주조, 보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등 10개 중소기업과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등 2개 맥주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디자이코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등 3개 위스키 회사다. 이들 업체는 청소년과 임산부 등 음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대학교 캠퍼스와 온라인을 통한 지나친 광고도 제한하며 모든 광고에서 선정성을 줄이고 미성년자 모델을 광고에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

### 10월 0.16%...전달보다 0.03%P 늘어

광주·전남 지역 10월 중 어음부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광주·전남 어음부도율은 0.16%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0.18%→0.19%)

26%이 0.08%포인트, 전남(0.06%→0.07%)이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부도금액(사업체 기준)은 43억 8000만원으로 전달 31억원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4억3000만원)을 제외한 제조업(+8억9000만원) 및 서비스업

(+7억4000만원) 등 대부분 업종이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 수(당좌거래업체 수)는 8개로 전달 2개보다 6개가 증가했다.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 신설법인 수는 284개로 전달 252개보다 32개 증가했고,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35.5배로 전달 126배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가계·기업 대출 지난달 급증세

### 지난달 가계와 기업의 은행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가계와 기업의 은행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에 이차전환 자금 수요와 경기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4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2000억원 늘어 9월(1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9월에는 4000억원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5000억원 늘었다. 기업은 대출뿐 아니라 기업어음(CP), 회사채, 주식 등 여러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늘렸다.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어 9월의 2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월의 5조8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 농협보험 가시화... '철새 설계사' 늘겠네

농협보험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철새 설계사'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신용(금융)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연말이나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중앙회 사내 조직인 농협보험도 독립된 보험회사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이때 농협보험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는다. 매출의 대부분을 농협 점포에서 올리는 농협보험으로서의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농협은 부랴부랴 설계사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1000명도 안 되는 설계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최근 설계사 교육센터를 서울 신촌에 세웠고 앞으로 전국 곳곳에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특히 농협보험의 기반이 취약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의 이 같은 행보는 가뜰이나 심각한 보험 설계사의 이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이 현재 생명보험업계 4위인 신한생명 수준으로만 설계사 수를 늘리고 해도 9000여명의 설계사가 더 필요하다. 현재 농협의 자산 규모는 30조원으로 신한생명의 3배이지만, 설계사 수는 1만명 가량의 신한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은행계 보험사인 하나HSBC생명마저 지금까지의 은행 점포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설계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설계사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한우·닭 사육 늘고 젖소·돼지 줄었다

### 호남통계청 가축사육 동향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육우와 닭은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젖소와 돼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지역(2005~2009년) 가축사육 동향'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남이 43만9000마리로 2005년 12월보다 60.1%(16만5000마리)가 증가했다. 광주는 6000마리로 53.5%(2000마리)가 늘었다.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쇠고기 이력추

진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가 늘면서 한우 산지 가격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사육 가격 안정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육우 사육농가 수는 전남이 3만4103가구, 광주 295가구로 2005년 12월과 비교해 각각 2.8%, 24.4% 감소했다. 사육 마릿수가 증가했음에도 사육농가가 감소한 것은 사육농가가 소규모 사육에서 벗어나 갈수록 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닭은 전남 1400만2000마리로 3.

1%(42만5000마리), 광주 9만3000마리로 181.8%(6만마리)가 각각 증가했다. 닭 사육 수는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에 따라 대체 축산물로 2007년까지 증가하다 2008년 조류독감으로 감소했으나, 2009년 육계와 계란 가격 상승으로 양계농가가 늘면서 증가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광주·전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전남 83만마리, 광주 7000마리로 각각 3.2%(2만8000마리)와 18.4%(1500마리)가 감소했다. 젖소도 전남은 3만1000마리로 16.1%(6000마리), 광주는 605마리로 18%(133마리)가 줄었다. 젖소 감소는 2002년 말 원유생산 조절제(쿼터제) 시행 이후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된데다 사육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곳”

##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병원!!  
이 지면을 이용하실 병원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2)220-0528 / 010-4767-2676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 모발이식 · 지방흡입

Before After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6개월 후)  
복부 허리 둔부 전층 지방흡입 시술 2년 후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가슴성형 모발이식 · 눈썹이식

**삼선의원** 상담문의 TEL. 062) 653-7656

‘사과같은 얼굴, 피부미인의 지름길’

강·한·남·자·피·부·미·인

###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강남 **진료과목** 피부과 비노기과 의원

전문의 원장 한 승 호

동구 대인동 30.3번지 2층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차무료  
예약및상담 062) 233-6060

알레르기성

## 비염

코피 · 축농증

50년 전통!! 대를 이은 한의원!!

**북경방 한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옆 한미쇼핑 맞은편  
TEL : 062) 227-7575, 223-8300, 222-9487

수술을 피할수만 있다면!!

목,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등으로 수술을 권유 받으셨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세요

그해답이 **서울 휴신경외과**에 있습니다.

인천 **힘찬병원**, 나누리 **병원** 신경외과 과장 역임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前 인제대 신경외과 외래교수  
가톨릭대 신경외과 외래교수  
경희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근로복지공단 신재 자문 의사  
대한 신경외과학회 회원  
대한 척추 신경외과 학회 회원

**찾/아/오/시/는/길**  
09시~19시 / 월~토 / 09시~12시 / 일  
09시~12시 / 월~토 / 09시~12시 / 일  
09시~12시 / 월~토 / 09시~12시 / 일  
09시~12시 / 월~토 / 09시~12시 / 일

**진/로/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정신시간: 오후 12:30 ~ 1:30  
일요일 - 공휴일 휴진

**서울 휴신경외과의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7-1번지 휴신빌딩 3층  
예약 문의 인터넷: www.seoulhu.co.kr (신원역 4번 출구 백영빌딩 옆)